

되던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선물이다.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선물하고, 감사했던 사람에게도 선물을 한다. 나는 아무에게도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. 세상과 사람이 주는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었다.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(8절).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묵상하며 최고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.

### 1.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(독생자)를 첫 번째 선물로 주셨다.

그 분이 왜 오셨는가? 뭘 위해 오셨는가? 어쩌다 온 것도 아니고(롬16:25 “영세 전에 감추어졌다 오신 것”), 계실 곳이 없어서 오신 것도 아니다(눅2: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그 분이 오신 것)

#### 1)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?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?

그 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,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다(눅2:10, 마20:28, 히9:12).

#### 2) 그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?

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, 완전하고, 절대적인 사랑이다. 이것을 한마디로 “오직”이라고 한다.

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확인해주신 것이다(4-6절)

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아보라. 그래야 나도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(아가페 사랑).

그 사랑으로 사람도 살리고, 세상도 살리는 것이다(7절).

②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, 완전하고, 절대적인 의이다. 이것을 한마디로 “유일성”이라고 한다.

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다.

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너무 더럽고, 악한 존재가 되었다(창3장 이후 지금까지 계속, 사64:6, 롬3:10)

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기를 원하셨다.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고,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(8-9절).

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 것이다(8절).

만일 이 축복을 못 깨닫고, 못 누리면 남은 것은 심판 밖에 없다.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, 지은 죄를 해결 못해서 받는 것이다. 그 심판과 저주를 그리스도가 받으시고,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이다.

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또 불쌍히 여기시고, 용서해주시고, 가리워주고, 기다리면서 치유하신다(엡4:32).

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내고, 다시 일어나고, 다시 영적 싸움을 하라(요8:1-11).

③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, 완전하고, 절대적인 능력이다(롬1:16). 이 속에서 “재창조”가 일어난다.

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재창조 하신다. 실패자 모세도, 배신자 베드로도, 핍박자 바울도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, 세상을 살리는 자로 재창조된 것이다.

그 분은 부족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운 나도 재창조할 수 있고, 누구라도 재창조해서 증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.

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, 부르시고, 구원하신 것이다

### 2. 하나님은 이렇게 쓰임 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, 선물이라고 하신다(사62:4).

#### 1) 영세 전에 선택하고,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실 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이다(사43:4).

소중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치 있는 선물이다.

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자녀로 삼을 만큼 소중히 여기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(영적 자존감)

이것은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, 자기 자랑에 빠져 사는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.

#### 2) 렘넌트라는 언약 속에도 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. 하나님이 소중하게 남겨놓았다는 것이다.

버려진 것 같은데,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(사6:13).

그 씨가 자라서 시대를 살리는 영적 씨앗이 되고,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다.

시대마다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다(롬11:5). 그 속에 나와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.

#### 3) 이렇게 자기를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, 갈등, 위기가 올 때 다르다.

①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다.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. 중요하다.

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. 문제가 해결 안 되고,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다. 왜 일까?

② 기도 자체로 행복해진다.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, 성령의 기쁨부음이 체험된다(시23:5)

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도 갈등하고 방향할 이유가 없다.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도 없다.

오직 그 분으로 집중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,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.

어느 날 보니 그 문제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다.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이 오고(렘33:3),

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응답이 와 있는 것이다(엡3:20).

### 3. 이후에 따라오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.

#### 1) 그래서 “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, 되어지는 것”이라고 한다(마4:19, 마16:18)

그렇게 전도가 되어질 수 밖은 없는 증인이 되도록 모든 것을 증거로 바꾸시겠다는 것이다(행1:8).

#### 2)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으로 약속한 축복이 이것이다.

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(마28:18-20),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시겠다는 것이다(막16:17-20), 이것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누릴 영원한 본질이고, 결론이다.

#### 3)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바꾸라. 여기에 집중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(10절).

우리가 공부하는 이유, 건강해야 하는 이유, 내 모든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.

① 결국 내가 살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인생의 영원한 선물과 면류관이 되는 것이다.

실제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다(사60:1-7)

내가 살릴 사람들을 내 옆으로 보내신다.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상관이 없다. 거기서도 내가 살릴 사람들이 있다.

②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모두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다.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행복이다.

요인 보디발도 살리고, 감옥의 사람들도 살리고, 왕도 살리고,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과 자녀들까지 살린 것이다.

③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,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따로 있었다.

거기서 빛을 발하고(사49:6), 거기서 이방인들을 위한 깃발을 들라는 것이다(사62:10).

그것을 위해 그 남은 자(렘넌트)들을 만민의 증인으로, 리더로, 사령관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것이다(사55:4-5)

**결론-**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세가지를 붙잡고, 최고의 성탄절을 누리고, 나누는 시간들이 축복한다.